

생태스포츠 참여자에서 환경활동가로의 변화 과정 연구

김태엽¹

¹서강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생

Research on processes from eco-sports participants to eco-activists

Kim, Tae-Yeop¹

¹So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mmon experiences of eco-sports participants as they progress toward pro-environmental behaviors using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model.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ienced eco-sports participants engaged in pro-environmental behavio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process for eco-sports participants consists of five stages: interest, entry, maintenance, activation, and specialization maintenance. Throughout these stages, participants transitioned into pro-environmental behaviors, progressing through entry, maintenance, autonomous specialization, and expansive specialization. A key factor in this transition was the experience of transfer, leading to the proposal of a modified recreation specialization cycle model. Additionally, obstacles such as criticism from opposing groups and fear of persuasion hindered pro-environmental behavior, while traits like empathy for the vulnerable, a spirit of service, and an emotional connection to nature facilitated engagement. Enjoyment in eco-sports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participation and fostering environmental sensitivity.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rocess of eco-sports participation leading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specialization. The finding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behavioral change through sports and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eco-sports programs that promote pro-environmental engagement.

Key words : eco sports, recreation specialization model, transfer, environment educati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주요어 : 생태스포츠, 여가 전문화 모형, 전이, 환경교육, 친환경 행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Tae-Yeop

E-mail: kim99075@naver.com

Received: Jan, 31, 2025 Revised: Mar, 7, 2025 Accepted: Mar, 17, 20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

프랑스의 경제학자 르네 파세는 '경제시스템과 생활시스템(L'économique et le vivant)'에서 경제는 사회 안에, 사회는 환경(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사회시스템과 환경시스템을 해쳐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ESG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었다(Passet, 1979). 우리 공동의 미래(1987)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UN 브루틀란 위원회, 1987),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언급했다 (General Assembly, 2005). 이렇듯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류의 행동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를 천명했다. COP21(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기후협약(2015.12)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데에 합의했고(UN, 2015), 대한민국은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감축 목표를 만들었다(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2023).

2)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스포츠와 환경에 관한 논의

스포츠에서도 스포츠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 평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UN(2016)에서 제시한 'Agenda

2030' 원문 중 'the new agenda'에서 언급한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스포츠나 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념 정립의 근거이다. 이 문서에는 스포츠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써 여러 가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원정, 2024).

3) 학교체육에서의 생태전환교육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전환교육을 '기후변화나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했다(교육부, 2022). 체육과에서는 스포츠를 기술형 스포츠, 전략형 스포츠, 생태형 스포츠 3가지로 분류하여(교육부, 2022) 스포츠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시 후 김재우(2023)는 마라톤으로 생태형 스포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실행하며 생태형 스포츠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스포츠 경험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미래 교육의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원정(2023)은 스포츠를 향유하는 과정과 방법의 정당성을 논하며 더욱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적 맥락에서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다른 생태를 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지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생태교육,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여가레크리에이션은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참여 문화 형성, 생태스포츠 참여 과정 연구 및 정책 개발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진지한 여가로서의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

진지한 여가란 여가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여가 만족도가 높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여가로(이유진, 2020)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 참여자들은 이러한 진지한 여가의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생계와 별개로 일정한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 및 전파하고, 스포츠 그 자체도 즐긴다.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을 여가의 관점에서 보고,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 참여자들은 여가 참여 과정에서 일반적 참여자로 시작하여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해 간다는 이문진(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에 진입하고 진지한 여가까지 나아가는지 여가 전문화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5) 생태스포츠에 관한 정의

2020년 생태스포츠라는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오정훈은 생태스포츠의 전제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변화된 시각, 즉, '스포츠를 위한 교육'에서 '스포츠를 통한 교육'으로 스포츠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자는 스포츠를 '프레임'으로 여기는 반면 후자는 '프리즘'으로 간주한다. '프레임'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지만, '프리즘'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세상과 연결하는 학습 내용이자 교육 방법이다. 둘째, 스포츠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은 '스포츠의 대중화'를 방향으로 하여 참여 확대를 중시했다. 이제는 '대중의 스포츠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스포츠의 생태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생태스포츠는 스포츠가 사회와 인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존, 다양성, 연대, 평등 등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이중승,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스포츠를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운동 환경에 순응하고 자연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스포츠 활

동으로 정의한다. 오래달리기, 등산, 트레일러닝, 산악스키, 서핑, 프리다이빙, 오리엔티어링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생태스포츠는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와 외부 환경과의 연결감에서 오는 환경 보호라는 더 깊고 넓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생태스포츠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 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6) 선행 연구 고찰

김형룡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적 스포츠 참가 정도가 환경의식과 친환경적 소비 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참여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높으며 기간이 길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73명을 대상으로 한 김종순(2010)의 연구에 따르면 등산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은 관련 없지만, 장소 애착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태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정 외(2014)의 연구에서는 캠퍼(camper)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향상될수록 친환경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갑 & 박선기(2015)는 420명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야외스포츠참가 대학생의 환경인식과 참여만족, 그리고 친환경적 태도가 상호 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는 여러 야외 스포츠 활동과 경험을 통해 생태학적 자연관을 형성하고, 이것이 친환경으로의 인식 변화와 일상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김민규 & 김승환(2020)이 298명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진지한 여가와 환경태도는 정적 상관, 환경태도와 친환경 행동은 정적 상관, 진지한 여가와 친환경 행동은 영향 없음으로 밝혀졌다. 박재

암(2022)은 연구를 통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몰입이 친환경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선기(2007)의 연구는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진정한 친환경으로의 모험스포츠 장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야외스포츠, 모험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이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동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체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스포츠와 환경 관련 연구에서 아웃도어와 환경 태도, 캠핑의 전문화 수준과 친환경 행동 수준이 비례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 양적연구를 수행했기에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까지 이어졌는지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활동가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어떻게 단순 스포츠 및 여가 참여자에서 자연과의 연결감을 높이고 친환경 행동을 즐겁게,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7)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들이 생태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공통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여 후속 연구 및 스포츠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기후 변화 대응 담론이 형성되는 흐름에 '생태스포츠'의 수정된 개념을 제시하고, 일상적 여가에서 진지한 여가까지의 변화 과정을 여가 전문화 모형으로 분석하여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태스

포츠를 시작하고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행동까지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공통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생태전환교육에서 체육과의 가능성 탐구 및 생태형 스포츠 교육과정 개발, 예비교원(교·사범 대학생)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스포츠 학습자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를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스포츠를 하며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친환경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스포츠가 보편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태스포츠 참여자에서 환경활동가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행동 동기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의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에 관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지한 여가로서의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여자들이 어떤 공통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친환경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 둘째, 생태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 및 전문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전문화 순환 모형을 바

탕으로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의 전문화 과정을 분석하고 도출된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였고, 참여자들에게 개별 및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의 전문화 단계를 도출하였고,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의 전문화 과정이 순환 모형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의 공통점을 이해하려 했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생태스포츠 참여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친환경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운동과 환경 활동이 삶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에 관하여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생태스포츠 3년 이상, 친환경 행동 1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유목적 표집법(Padgett, 2001)을 사용하였다. 유목적 표집법은 질적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집법 중 하나이며 질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하여 해석이나 통찰 등이 목적이므로(이유진, 2020) 본 연구에 적합한 표집방법이다.

심층면담 참여자 5인의 특성은 다음 <표 3>의 내용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체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코드	성별	나이	학력	직업
A	남	49	대학원졸	군인
B	여	35	대졸	마케터
C	남	39	대학원졸	엔지니어
D	남	31	대졸	예비교사
E	여	31	대학원졸	변호사

표 2. 연구 참여자의 생태스포츠 및 친환경 행동 경력

코드	생태스포츠 경력 (유지 단계 기준)	생태스포츠 종류	친환경 행동 경력 (유지 단계 기준)	친환경 행동 수준
A	7년	달리기 플로깅	3년	확산적 전문화
B	13년	클라이밍 산악스키 트레일러닝	17년	자율적 전문화
C	7년	트레일러닝 달리기	4년	확산적 전문화
D	9년	스키	1년	유지
E	11년	등산 달리기	10년	자율적 전문화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진입부터 진지한 여가까지의 여가 전문화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하는 동안 현장노트를 작성했다. 현장노트에는 질문과 대답에 대한 기록,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연구자의 의견 등을 기록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전사 자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새로운 질문이 생겼을 때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 전화나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논문 지도교수와 연구 설계부터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및 해석 전 과정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과정을 거친 선행연구 고찰과 심층면담의 자료를 토대로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친환경 행동까지 나아가는 전문화 과정을 구성하였다.

Ⅲ. 결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 과정을 단계별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여가 전문화 모형을 바탕으로 생태스포츠 5단계, 친환경 행동 5단계 전문화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1. (좌)송영민(2010)과 (우)이문진(2017)이 제시한 여가 전문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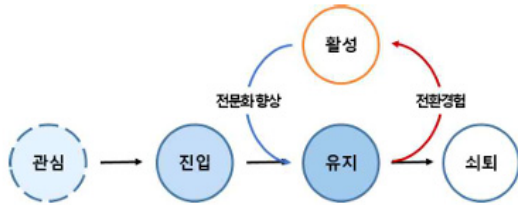


그림2. 이문진 & 정성한(2022)이 제시한 수정된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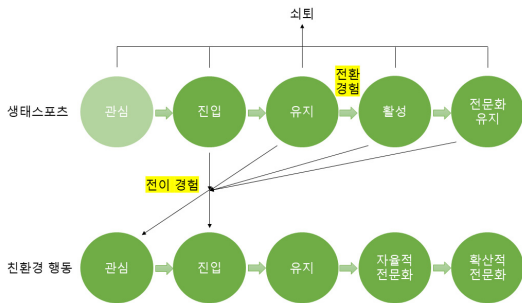


그림3.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 모형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 과정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단계가 있고, 이후 스포츠를 시작하는 ‘진입’부터, 운동을 지속하는 ‘유지’, ‘활성’, ‘전문화 유지’까지 기존 이문진 & 정성한

(2022)이 제시했던 테니스 동호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순환 모형과 동일하였다. 이후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진입~전문화 유지 단계에서 ‘전이 경험’을 통해 친환경 행동전문화의 ‘관심’ 또는 ‘진입’ 단계로 넘어갔다.

친환경 행동의 전문화 과정은 환경에 대한 ‘관심’, 친환경 행동을 시작하는 ‘진입’, 친환경 행동을 지속하는 ‘유지’, 개인적 수준에서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율적 전문화’, 사회적 수준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확산적 전문화’ 단계를 거친다. 이때 참여자들은 ‘걸림돌’을 경험하고 극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전 단계로 후퇴하거나 현 단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단순 스포츠 참여에서 ‘전이 경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연결감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1. 생태스포츠 전문화 과정

1) 관심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단계로 생태스포츠 중 하나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 단계에선 생태의 개념보다 스포츠, 운동의 개념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생태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은 없으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나 의지를 갖게 되는 시기이며, 생태스포츠에 대해 주변 사람을 통해 전해 듣거나 이벤트 등의 외적 요소를 통해 접한 경우가 많다. 관심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인 진입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관심 단계’는 여가 전문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여가 전문화가 시작되기 전 사전과정의 의미가 강하다(이문진 & 정성한, 2022). 실제로 테니스 동호인의 경우에도 관심의 단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테니스라는 종목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이문

진 & 정성한, 2022).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관심 단계는 사전과정의 의미가 강하였고 진입 단계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2) 진입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진입'의 단계로 생태스포츠를 활동을 실제로 처음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다.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지인, 커뮤니티 활동, 이벤트를 통해 생태스포츠를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문진(2017), 이문진 & 정성한(2022)의 연구에서 제시한 스키, 테니스 참여자들의 진입 단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스키 참여가 색다른 경험이나 이벤트에 가깝고, 테니스의 경우에는 테니스라는 활동을 접할 기회가 레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생태스포츠의 경우 함께하는 사람과 브랜드나 SNS 이벤트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달리기, 트레일러닝, 등산 등은 스키, 테니스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D의 경우는 스키 참여자 선행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와 달리 강사로서 참여한 것이기에 선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선행연구에서 테니스의 경우 클럽 가입 단계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다수의 테니스 참가자는 진입 단계에서 이탈을 하고 소수만이 클럽의 가입 기회를 얻고 유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문진 & 정성한, 2022). 반면, 생태스포츠의 경우 혼자서 어디서든지 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에 동호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 단계로 넘어갔다.

3) 유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유지'의 단계로 스포츠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진입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 활동 혹은 단독 운동을 통해 정기

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경우 유지 단계에 해당한다.

Scott & Shafer(2001), 이문진(2017), 이문진 & 정성한(2022)의 연구에서 유지의 단계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Scott & Shafer(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지 단계는 일정 수준의 여가 전문화 향상 이후 쇠락 단계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이문진 & 정성한(2022)이 제시한 유지 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문진(2017)의 스키 참가자 연구에서는 스키가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계절 스포츠라는 점에서 활동의 제약이 많기에 간헐적 활동에서 정기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 동호회 등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유지 단계로 보았다. 이문진 & 정성한(2022)의 테니스 참가자 연구에서는 동호회 등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기적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야만 유지 단계로 보았다. 이때 클럽에 가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생태스포츠의 경우 혼자서도, 함께도 1년 내내 언제 어디서든지 운동할 수 있기에 동호회 가입 여부, 동호회 활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자연 속에서 행하는 운동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경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운동 참여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4) 전환 경험을 통한 활성 단계

전환 경험을 통해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친 환경 행동에 대한 강한 열정과 애착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 단계에 있는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이전에 비해 활동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며, 커뮤니티 활성화 욕구가 증가했다. 특히, 이 시기 생태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식 습득, 활동 전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태스포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생태스포츠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이 재편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문진(2017)의 스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키 참가자의 전환 경험이 활성화 현상을 촉진하고 여가 전문화 향상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며 높은 수준의 여가 전문화로 도달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주장했다. Scott & Shafer(2001)의 연구에서는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이라는 의미로 전환점(turning point)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송영민(2010)의 낚시 전문가 연구에서도 전환기 이후에 전문화 향상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Stebbins(1982)의 경우 진지한 여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발적 계기(contingency event)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에서 전문화 향상, 진지한 여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특정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며 공통적으로 전환 경험 혹은 전환점을 하나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문진 & 정성한(2022)은 테니스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환 경험은 여가 전문화 과정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여가 전문화의 유지 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자극제 혹은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문진 & 정성한(2022)의 연구결과에 따라 전환 경험을 유지 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로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의 공통적인 전환 경험은 커뮤니티, 함께하는 사람이다. A의 경우 온라인 크루와 하는 미션, B의 경우 트레일러닝 행사 및 대회 참여와 입상, C의 경우 다른 트레일러너와의 교류, D의 경우 같이 스키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E의 경우 함께 러닝 크루를 만든 친구가 있었다. 또한, E의 경우 경제력을 갖추기 시작하며 더 높은 수준의 등산 장비를 구비하고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5) 전문화 유지 단계

이 단계는 앞에서 제시한 유지 단계, 활성화 단계를 거쳐 높은 전문화 수준에서 유지하는 단계를 말한다. 활성화 현상을 통해 생태스포츠 기술적, 경험적 수준이 올라간 참가자는 대회 혹은 운동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활동 및 리더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 이 시기의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생태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스포츠적 신념이 형성되고 스포츠가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단계는 이문진(2017), 이문진 & 정성한(2022)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유지→활성→전문화 유지’로 이어지는 순환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화 유지 단계는 진입 단계에서 이어지는 처음의 유지 단계와는 다른 전문화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유지 단계이다. 이를 통해 이문진(2017), 이문진 & 정성한(2022)이 제시한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이 타당함을 지지할 수 있다.

2. 친환경 행동의 전문화 과정

1) 전이 경험을 통한 관심 단계

친환경 행동의 ‘관심’ 단계는 생태스포츠의 진입, 유지, 활성화, 전문화 유지 단계 중 하나에서 ‘전이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생태스포츠 활동을 하며 환경과 연결감을 느끼고 환경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다. 전이(transfer)란 스포츠 영역을 통해 내면화한 라이프스킬을 학교, 가정, 일상 등 스포츠 영역 외의 다른 환경으로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Pierce, Gould, Camiré,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 경험’을 한 여가 전문화 과정에서 다른 여가 전문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정 전문화 수준에 도

달한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이러한 전이 경험을 통해 친환경 행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되었다.

친환경 행동의 '관심' 단계는 생태스포츠와 선행 연구에서의 관심 단계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우선, 미디어와 SNS, CSR, ESG 경영, 환경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환경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염정운 & 강선아(2023)의 한국 환경연구원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조사 결과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였다. 정철 & 김윤지(2024)는 환경 인식은 환경 행동이 발현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만, 인식이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는 전공과 성별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했다. 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친환경 행동 발현에 필요한 단계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친환경 행동의 '관심' 단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기존에 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 생태스포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생태스포츠 전문화 과정에서 친환경 행동 전문화 과정의 관심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생태스포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여 행동을 이끌어내어 친환경 행동 전문화 과정의 진입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2) 진입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진입' 단계로 친환경 행동을 실제로 처음 실행하는 단계이다.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대인 요인(지인, 커뮤니티 활동), SNS, 생태스포츠 활동 자체를 통해 친환경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행동의 진입 단계에서는 대인 요인, SNS, 생태스포츠 활동 자체가 연구 참여자들

이 친환경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는 V사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친환경 행동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플로깅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에게는 환경 보호와 리워드를 동시에 얻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B는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수행 평가 과제를 통해 동네의 배수지 공사 반대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환경 활동에 진입하였다. D는 스키장에서 알게 된 지인의 영향을 받아 환경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플라마켓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C는 J의 제안으로 해외 P사 애슬릿들의 활동을 접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풀어내고자 '세이브더'라는 단체를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지구 온난화나 생물종 감소 등에 대해 막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E는 산행 중 다른 트레커들이 환경을, 자신이 다니는 공간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이처럼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환경 행동에 진입했다. 주변 지인, 커뮤니티 활동, SNS, 생태스포츠 활동 자체가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생태스포츠가 친환경 행동을 촉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유지' 단계로 친환경 행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진입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 활동 혹은 단독 실천을 통해 정기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단계이다.

A는 초기에 남 눈치를 보며 쓰레기를 주웠

다. 이후 플로깅에 대해 더 알아보고 W환경단체를 알게 되면서 커뮤니티 사람들로 부터 동기 부여를 받고, 출퇴근길에 정기적으로 담배꽂이를 줍는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00ml 페트병 약 5만 개의 담배꽂이를 수거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바시에서 발표도 하였다. B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강화도 환경연합에서 새만금 사업 반대 활동을 접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을 시작하고 이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하였다. D는 여자친구의 영향을 받아 고체 치약,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 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텀블러 사용 시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으며 친환경 행동을 유지하고 있다. E는 등산 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시 가져와 분리수거하고, 사무실에서 포장지를 뜯어 분리수거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환경 보호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초기 진입 단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주변의 지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의 행동 등이 유지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율적 전문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자율적 전문화' 단계로 정기적인 참여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공부하며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남들이 좋다는 친환경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찾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실천하며,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동을 실천한다.

A는 출퇴근길에 담배꽂이를 줍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을 깨닫고, W환경단체와 언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

고, 마라톤에서도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뛰는 등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B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경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지만, 업무 중 활동, 후원 및 지지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 활동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개인에게 큰 치유가 된다고 느끼고 있다. E는 환경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브랜드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오래 사용하기와 중고 거래를 통해 새 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 전문화 단계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유지 단계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개인적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감수성, 획득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생태스포츠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5) 확산적 전문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확산적 전문화' 단계로 '자율적 전문화' 단계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수준의 친환경 행동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이것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을 실천하며, 주변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

A는 지방대회에서 버려지는 종이컵의 양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를 SNS와 W단체의 단톡방에 공유하였다. 이를 계기로 W단체에서는 마라톤에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H사와 협업하여 마라톤 대회 일부 구간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부대와 주변에도 플로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국방 TV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플로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B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환경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피켓을 들며 환경 운동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가나 환경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UNEP와 환경부 대회 활동 등 다양한 환경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C는 세이브더를 통해 여러 환경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해결에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가족과도 탐구 활동을 하며 아들이 생태감수성과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아들 스스로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비슷한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활동을 전파했다.

이처럼 '확산적 전문화' 단계에서는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개인적 실천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친환경 행동을 촉진한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며, 커뮤니티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생태스포츠 전문화에서 출발한 친환경 행동 전문화가 개인의 환경 인식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 경험

1) 봉사 정신, 타자에 대한 연민

첫 번째 공통점은 봉사 정신, 타자에 대한 연민이다. 자원봉사는 공익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그 본질에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 내재되어 있다(지규원, 배귀희, 유병욱, 2017). 이러한 봉사 정신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참여하여

타인의 복지와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연민은 우리의 상상을 타자들의 선과 연결하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의지하는 감정으로 그 기저에는 '고통이 심각한 것이라는 것',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의 3가지 인지적 필요조건이 있다(Nussbaum, 2015). 이는 봉사 정신의 중요한 감정적 기초로, 타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며,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강화한다.

A는 내성적 성향과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후원을 시작했고 이러한 성향이 생태스포츠 참여와 결합하여 친환경 행동 참여로 연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B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 환경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심이 청소년기에 행동으로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C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동물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트레일러닝을 하면서 이러한 성향이 연결 연결되어 지금의 환경운동가 C로 이어졌다. D 또한 은연 중에 남을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자로서의 꿈으로도 이어졌고 친환경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의 경우에는 생태스포츠를 오래 즐기고 내가 있는 공간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친환경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봉사에 대한 관심이나 약자에 대한 연결감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는 나라는 경계 이외의 것, 즉, 타자에 대한 연민과 관심 또는 생태스포츠 공간에 대한 애정이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 촉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의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 함양이다(정철외, 2018). 따라서 생태스포츠를 통해서 나 이

외의 자연 및 타인과의 연결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 삶의 변화와 지속할 수 있는 동기

연구 참여자 모두 생태스포츠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 전문화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느꼈고 이것이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을 지속하고 전문화 수준을 높여가는 동기로 작용했다.

A는 환경 커뮤니티에서 얻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달리기와 플로깅 자체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이 주된 지속 요인이다. B는 자연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생태스포츠를 지속하고 있고 아웃도어 업계에서 일하며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의 삶을 살면서 환경에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 또한 트레일러닝이 주는 기쁨,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생태스포츠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 기쁨을 온전히 전달하려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동기를 가지고 환경 활동을 해오고 있다. D의 경우 생태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 참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다음 세대를 위해 친환경 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E는 아빠 따라 등산을 시작하고 대학 진학 이후 자발적으로 꾸준히 등산을 해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했고, 자신이 사랑하고 즐기는 공간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에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생태스포츠를 지속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3)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적 감수성 확립 및 전이 경험

생태적 감수성은 환경과 생태, 즉, 자연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또한, 자연을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감적 태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심미적 감각을 가지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공존에 대해 공감하는 감성을 의미한다(김지홍, 2018). 연구 참여자들은 생태스포츠 전문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과의 연결감,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애정, 기후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이 과정에서 생태적 감수성이 확립되어갔고 이 상태에서 '전이 경험'을 통해 친환경 행동 전문화 과정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A는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달리기를 하며 느낀 자동차 매연의 심각성으로 공기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절감했다. 매연 가스를 직접 체감한 후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플로깅과 같은 환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경험은 러너로서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B는 트레일러닝과 산악스키와 같은 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했다. 자연환경에서 고생하며 자연의 무서움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도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은 트레일러너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C는 트레일러닝을 통해 자연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습성이 자연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자연에서 뛰며 얻은 즐거움을 다음 세대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C는 세이브더갯벌, 세이브더순환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이해와 실천을 도모했다. 자연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C의

환경 보호 활동 동력이 되었다. D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키를 타고 또한 날씨의 영향을 받는 야구로 인해 기후 변화를 느꼈고 이것이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쳤다. E는 원래도 환경에 관심이 있었고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이 쓰레기로 덮인 것을 목격한 후 직접 행동을 시작했다.

A는 도심에서의 공기 오염을 체감하고, B는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 C는 자연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D는 스키를 통해 산에서의, 야구를 통해 도심에서의 기후 변화를 체감했고, E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이 쓰레기로 앉는 것을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태스포츠를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전이 경험이 되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경험은 친환경 행동의 시발점이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자연 속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태스포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V. 논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고 야외스포츠, 모험스포츠와 환경 감수성, 환경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김종순, 2010; 김현정 외, 2014; 장대갑 & 박선기, 2015; 김민규 & 김승환, 2020), 일부 연구는 질적 연구로 진행하여 모험스포츠 참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찰했다(박선기, 2005).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에서 영감을 얻어 야외스포츠, 모험스포츠의 범주에서 좀 더 확장하여 생태스포츠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가까지 성

장하는지 과정과 공통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태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 참여로 연결되는 새로운 전문화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문진 & 정성한(2022)의 수정된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의미 단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생태스포츠 5단계 및 친환경 행동 5개 단계의 전문화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 경험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약한 것에 대한 관심과 연민, 봉사 정신, 자연공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생태스포츠와 결합하여 친환경 행동을 촉발했다. 둘째, 생태스포츠 자체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생태스포츠를 지속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생태스포츠를 하며 겪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지, 지인의 영향, 환경감수성 확립 등의 전이 경험을 통해 생태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으로 나아갔고 커뮤니티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지인 등의 대인경험과 생태스포츠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환경 인식을 중요한 전이 촉진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약한 것에 대한 관심과 연민, 봉사 정신, 자연공간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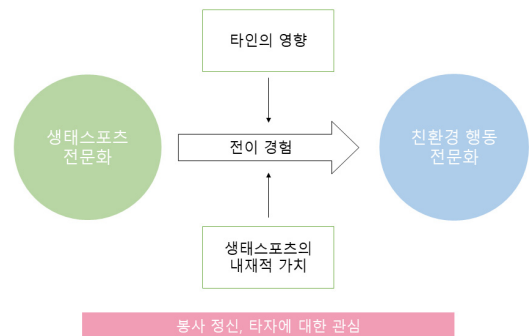


그림4. 생태스포츠에서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 촉진 요인 도식화

선행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고 야외스포츠, 모험스포츠와 환경 감수성, 환경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일부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하여 모험스포츠 참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찰했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에서 영감을 얻어 야외스포츠, 모험스포츠의 범주에서 좀 더 확장하여 생태스포츠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가까지 성장하는지 과정과 공통 경험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성정희 외(2017)는 대학생들의 환경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발적이고, 캠페인성의 교육과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변화와 환경적 소양을 갖추어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어 인격화가 이루어진 내면화 과정의 최종단계에 이르는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신념과 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여가로서의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전환교육이 효과하게 작용할 것이고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을 단계별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은 생태스포츠에 대한 '관심' 단계가 있고, 이후 생태스포츠를 시작하는 '진입'부터, 운동을 지속하는 '유지'를 거쳐, 전환 경험을 통한 '활성', '전문화 유지'의 5개 단계까지는 동일하였다.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각 단계 중 하나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연결감을 가지게 되고

친환경 행동 전문화 단계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스포츠 전문화 과정 5단계와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진 5단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이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의 여가 전문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생태전환교육의 기초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은 관심, 진입, 유지, 활성, 전문화 유지의 5개 단계와 '전이 경험'이라는 친환경 행동 전문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계기로 구성된다.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단계는 여가 전문화 순환 모형에 적용 가능하며, '유지→활성→전문화 유지'로 이어지는 순환 모형의 핵심적인 과정이 일치한다.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은 테니스 참가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과 유사하지만 생태스포츠의 경우 친환경 행동으로 나아가는 전이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여가 전문화 모형은 한 스포츠에서 비슷한 다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여가 전문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친환경 행동에서 반대 단체의 비난, 설득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감 등의 걸림돌을 경험하였다. 이 걸림돌을 극복한 참여자는 다음 단계로 갔고 극복하지 못한 참여자는 이전 단계에 머물거나 후퇴했다. 또한, 타자에 대한 연민(관심), 봉사 정신, 자신이 존재하는 자연 공간에 대한 사랑이 친환경 행동의 중요한 촉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생태스포츠를 참여

와 결합되어 친환경 행동 참여로 연결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친환경 행동 발현에는 참여자의 기질, 미디어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며 생태스포츠 또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태스포츠를 통해 자연과 타자와의 연결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친환경 행동의 발현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생태스포츠를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증폭하고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과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 참여자가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들의 공통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앞으로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 예비교사를 위한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다. Karami, Shobeiri, Jafari, Hendi (2017)는 기후변화 교육(CCE: Climate Change Education)의 핵심 인물은 교사이며 교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약간의 개정만으로 이어왔는데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박상봉(2023)은 생태형 스포츠교육과 관련된 현장 교사 교육 및 현장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교사들의 이해를

위한 연수가 무엇보다 뒷받침되어야 하고, 특히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 부각된 생태형 스포츠 교육에 대한 실천적 교육과정 연수가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D 또한 인터뷰에서 교사의 개입이 중요하기에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봉사 정신, 타자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생태스포츠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환경 인식, 그리고 타인의 영향이 중요한 전이 촉진 요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생태스포츠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생 및 현직 교원들에게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타자에 대한 관심,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생태스포츠로의 전이 촉진에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봉사 경험 유무, 타인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 생태스포츠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으로의 전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태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추후 이에 관해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이야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목의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전이 경험 사례를 더 많이 수집해 유형화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행동을 먼저하고 생태스포츠를 접하여 전문화가 이루어진 참여자들을 발견했다. 본 연구와 반대되는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김민규, 김승환(2020),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환경태도 및 친환경 행동의 관계, *교육문화연구*, 26(4), 753-763.
- 김원정(2023), 다학문적 '생태' 관점 고찰과 해석을 통해 본 스포츠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1), 21-47.
- 김원정(2024), 지속가능발전(SD) 연구 동향을 통해 본 스포츠교육 영역의 확장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1(1), 1-29.
- 김재우(2023), 「생태형」 스포츠 의미 이해와 실천: 마라톤 수업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 16-25.
- 김종순(2010), 등산경험과 친환경행동을 통해본 한국적 등산의 의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 유광민, 김남조(2014),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8(7), 13-33.
- 김형룡, 박순문, 장은정(2004), 친환경적 여가스포츠활동과 환경의식 및 친환경적 소비행동의 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4(1), 57-67.
- 박상봉(2023),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생태형 스포츠 실행 경험과 생태형 스포츠교육의 정착을 위한 제언,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34(4), 83-100.
- 박선기(2007),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20(4), 132-144.
- 박재암(2022),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몰입 친환경태도 미세먼지위험인지, 친환경제품 구매의도 친환경제품 구매의도의 관계, *문화와 융합*, 44(7), 527-538.
-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 성정희, 정수현(2017), 그린캠퍼스 활동에 나타난 내면화 수준분석과 대학 환경교육의 과제, *환경교육*, 30(1), 103-120.
- 손영근, 이병관(2012),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 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6(6), 127-161.
- 송영민(2010), 여가 전문화 과정에서 제약과 촉진의 의미 분석: 닐시채널 전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3), 237-260.
- 염정윤, 강선아(2023).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 이문진(2017), 스키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 과정. *한국체육학회지*, 56(1), 543-552.
- 이문진(2023), 여가활동 참여과정 모형제한 여가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1), 1-15.
- 이문진, 정성한(2022),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 전문화 과정, *한국융합과학회지*, 11(11), 151-167.
- 이유진(2020), 진지한 여가로서의 수영을 통한 수영 참여자의 삶의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승(2022.01.07), [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 스포츠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07/111141600/1>.
- 장대갑, 박선기(2015), 야외스포츠 참가 대학생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 만족, 친환경적 태도의 관계, *환경교육*, 28(2), 146-162.
- 정철, 김윤지(2024), SDGs 연계 교육에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26(1), 111-132.
- 정철, 임수정, 김윤지, 박종근, 이규철, 조성화, 남영숙, 이상원, 신지혜, 주형선, 이재영(2018),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지규원, 배귀희, 유병욱(2017),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을 이용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유형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책연구*, 31(4), 59-85.
- General Assembly(2005), *2005 World Summit Outcome*, 12.
- Karami. S., Shobeiri. S. M., Jafari. H., Hendi. G. H.(2017), Assessment of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KAP) towards climate change education(CCE) among lower secondary teachers in Tehran, Ira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e Change Strategies and Management*, 9(3), 402-415.
- Nussbaum, M. C., 조형준 역(2015), *감정의 격동*, 서울: 새물결.
- Padgett, D. K.,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파주: 나남.
- Passet, R.(1979), *L'économique et le vivant*, Paris: Payot.
- Pierce, S., Gould, D., Camiré, M.(2017), Definition and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1), 186-211.
- Scott, D., Shafer, C. S.(2001),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3), 319-343.
- Stebbins, R. A.(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 UN(2015), *Paris Agreement*, 3.
- UN 브루틀란 위원회(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41.